

보도일시 (인터넷) 2025. 1. 22.(수) 11:00,
(지면) 2025. 1. 23.(목) 조간

배포 2025. 1. 22.(수) 06:00

연안선박 24시간 해상원격 의료지원 확대한다

- 2025년, 연안선박 130척 대상으로 바다내비 해상원격 의료지원 서비스 제공

해양수산부(장관 강도형)는 바다 내비게이션(이하 ‘바다내비’) 초고속 해상무선 통신망(LTE-M)을 활용하여 연근해어선, 내항화물선 등 연안선박(육지에서 100km 이내) 선원들에게 제공하는 24시간 무료 원격 의료지원 서비스를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.

해양수산부는 부산대학교병원과 2023년부터 원격의료지원장비*가 설치된 연안선박에 영상통화로 선원들의 건강관리와 응급처치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. 지난해에는 동 사업을 24시간 전담 의료지원 체계로 확대 개편하여 110척의 선박에 총 1,252건의 의료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였다.

* 원격 의료지원 전용 앱이 설치된 태블릿과 의료기기, 구급약품으로 구성, 앱을 통해 영상통화, 건강수치입력, 상담예약 및 결과확인

올해는 1월 24일부터 참여 선박 공모*를 통해 신규로 20척의 선박을 추가해 지난해 지원 선박 110척을 포함해 총 130척의 연안선박을 지원할 계획이다. 만성질환 및 응급처치 지원 등 해상원격 의료지원 서비스를 24시간 제공하고, 선원 정신건강을 위한 상담 서비스와 선박에서 쉽게 보관·이용할 수 있도록 작고 가벼운 원격의료지원장비를 새롭게 제공할 계획이다.

* (참여선박 공모) 자세한 사항은 부산대학교병원 누리집(<http://mmrc.pnuh.or.kr>) 공지사항에서 확인

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“내항선 해상원격 의료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연안선박 선원에 대한 안전과 의료복지가 한층 강화되기를 기대하며, 앞으로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”라고 말했다.

담당 부서	해사안전국 첨단해양교통관리팀	책임자	과 장	김인수 (044-200-6141)
		담당자	사무관	배철수 (044-200-6233)

참고 1

해상원격 의료지원 시범사업 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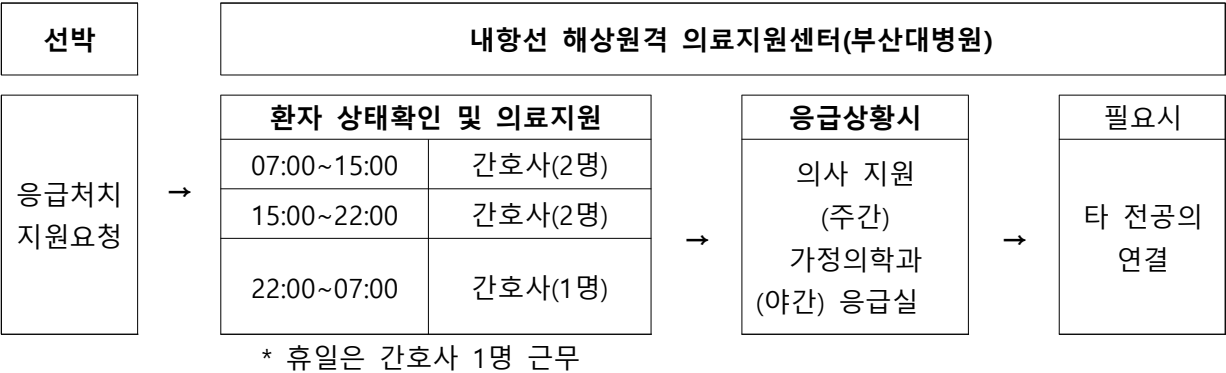
□ 현 황

- 연안선박 선원은 응급상황 및 질병에도 신속한 의료지원 곤란으로 응급처치 골든타임 확보에 한계
- 해상에서 응급상황 발생 시 선박↔의료기관 간 영상통화를 통한 원격 응급처치 지원 및 건강상담 서비스 제공('23~) 추진

□ 주요 내용

- (서비스 제공) 전용 ‘앱’, 전담 의료진을 통해 비상상황 시 실시간 응급처치 지원, 평상시에는 만성질환 등 건강상담(선박당 월 2회) 제공
 - * △화상통화(화면드로잉 등), △응급상담, △실시간 채팅, △상담예약 기능, △의료교육자료 등 탑재
- (대상선박) 연안선박을 대상으로 사업참여 공모*를 통해 선정
 - * (선정조건) △바다내비 단말기 설치, △12시간 이상 항해, △승선정원 3명 이상 등
- (의료키트) 휴대용 가방*에 화상통화용 테블릿, 의료기기(혈압기, 산소포화측정기, 혈당계 등), 의약품(탄력붕대, 화상치료 연고 등) 등 제공
 - * 연안선박의 협소한 선내 공간 및 운항특성(조업 등)을 고려하여 경량·휴대성 ↑
- (의료진) 전담 간호사(7명) 24시간 교대근무(상담후 필요시 의사 지원)
 - ※ (의료지원 범위) 선상에서 응급환자 발생 시 구급인력이 도착할 때까지 원격 응급처치 지원 등 선원의 부상·질병에 관한 의료조언으로 제한

< 해상원격 의료지원 체계 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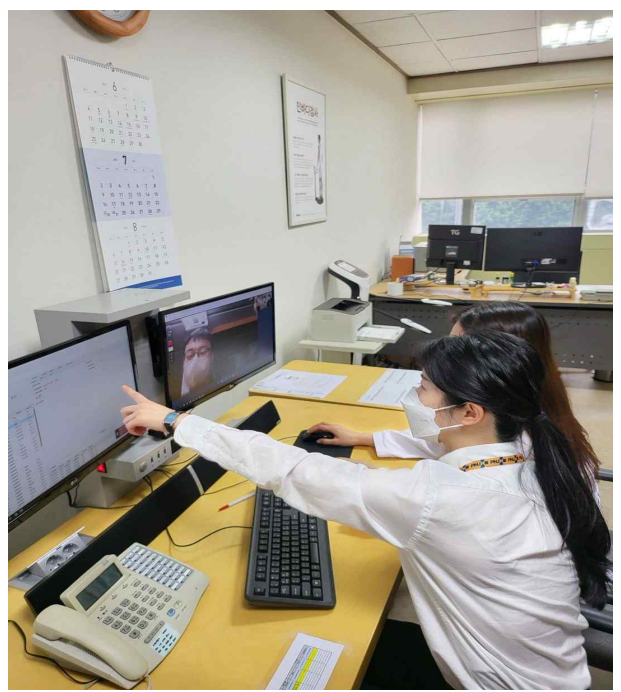
참고 2

해상원격 의료지원 서비스 및 원격의료지원키트 사진

< 원격 의료지원 서비스 사진 >



선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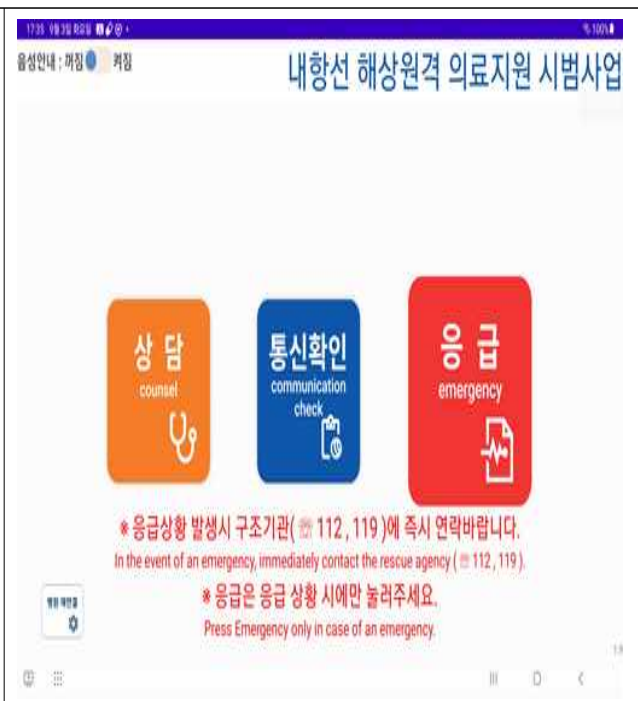


병원

< 원격 의료지원 키트 및 앱 사진 >



원격의료지원 키트



원격 의료지원 '앱'